

Chung Mong-Koo Foundation

제3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학·문화예술

일시 | 2017년 11월 11일(토) 13:00 - 18:00

장소 | 역삼 P&S타워 3F

환영의 글

먼저 오늘 ‘제3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2009년 장학사업을 시작한 이후, 점차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기초학문과 문화예술, 그리고 이공계 분야의 장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학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는 학생들이
사회변화와 미래시대의 과제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도록 2015년부터 개최되었으며
올해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학·문화예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은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위해
사회, 경제, 과학,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과 각 분야 대표 장학생들이 함께하는 패널토의를 통해
자신의 전공이 어떻게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와 어떻게 융합하며
발전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비전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사회변화와 미래인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주목하며,
다양한 인재들이 폭넓은 시야와 사고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1일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

유영학

일정

시간	구분	상세내용	비고
12:00 ~ 13:00	참가자 등록 및 행사준비	참가자 등록 및 착석 안내	
13:00 ~ 13:10	행사개회	개회사 및 이사장님 인사말씀	사회자
13:10 ~ 13:40	기조연설	글로벌 시대의 리더십 : 창의성과 봉사	서울대학교 유영제 명예교수
		Q&A	
13:40 ~ 14:40	강연1. 이공계 분야	사회문제 해결과 과학기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위진 단장
		Q&A	
14:40 ~ 14:50	휴식		
14:50 ~ 15:50	강연2. 인문학 분야	사회공헌 철학 리더십	연세대학교 김형철 교수
		Q&A	
15:50 ~ 16:50	강연3. 문화예술 분야	창의적인 넋지 커뮤니케이터, 지속적인 공공 커뮤니케이션	광운대학교 이종혁 교수
		Q&A	
16:50 ~ 17:00	휴식		
17:00 ~ 18:00	패널토의 청중질의응답	지속가능한 미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지속가능성에 대한 과학·인문학·문화예술 분야별 논의를 바탕으로	패널 각 분야 연사 및 재단 장학생 총 6인
18:00	폐회	행사종료 및 해산	

기조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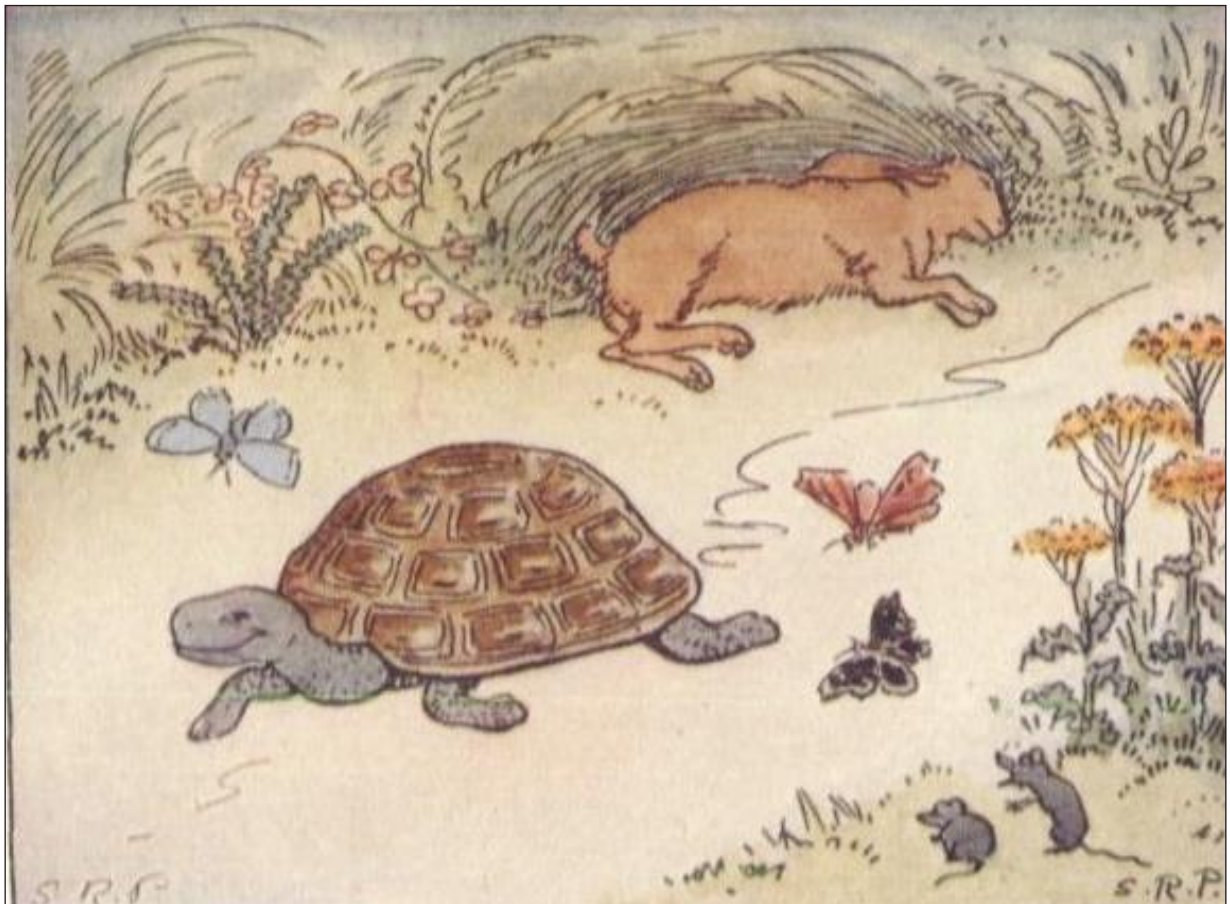
글로벌 시대의 리더십 창의성과 봉사

- 서울대학교 유영제 명예교수 -

글로벌 시대의 리더십 : 창의성, 봉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유명제

2017.11.11



“ How to win a rabbit? ”

1. ?
2. ?
3. ?
4. ?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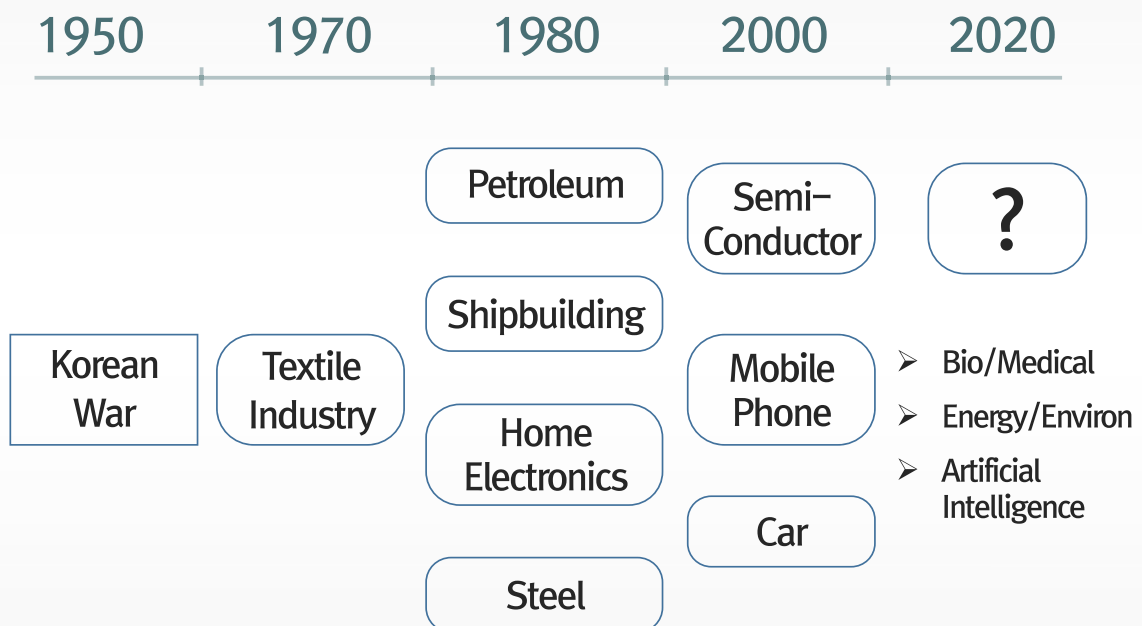
1. Do one's best
2. New technology
3. Take an advantage
4. Long-term
5. Cooperation

* Win-win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역사를 통해 배운다

-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
- 일본
- 우리나라 ?





2017 시대의 흐름?

- Globalization
- Economy
- Knowledge-based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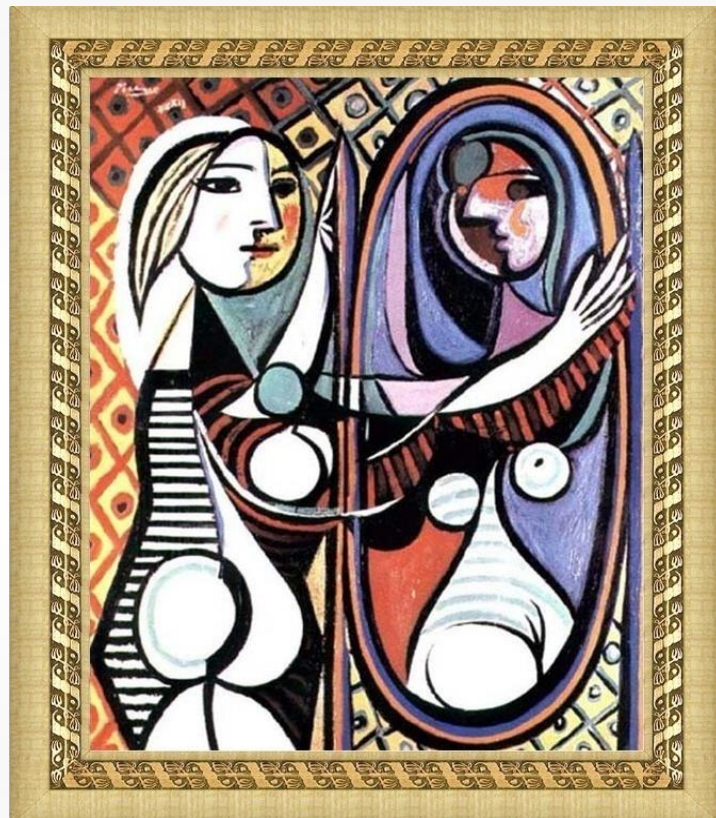
DOLLY



■ Knowledge-based Society

→ Knowledge-creation

■ What is knowledge creation?





글로벌 시대의 리더십: 창의성, 봉사

■ Knowledge Creation

Originality

Significance

Science Research

Problem Sol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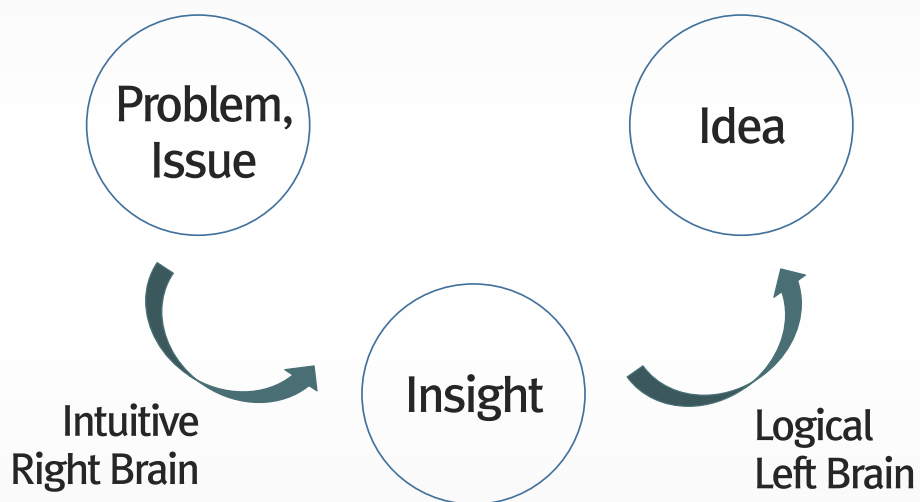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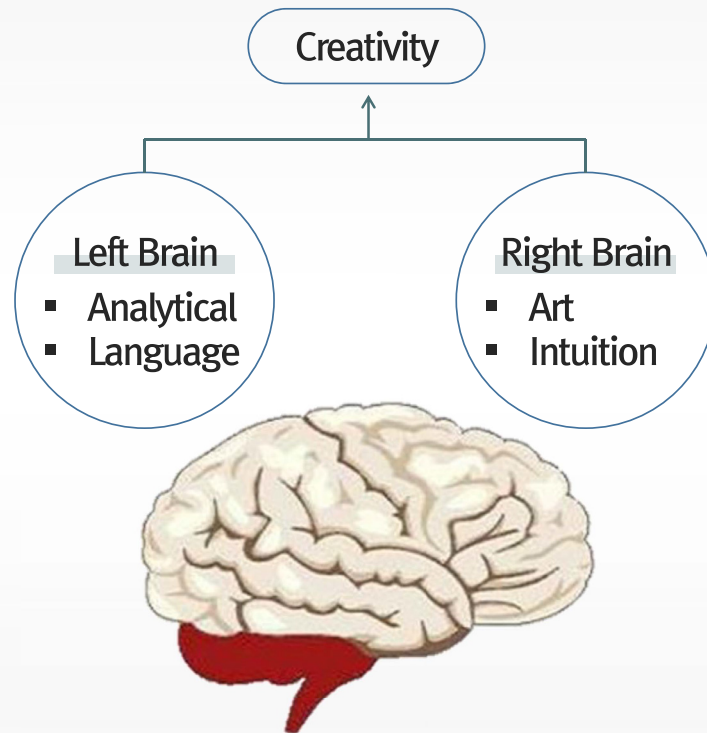
Way to knowledge creation?



- Curiosity
(Conscious Curiosity)
- Critical Thinking

From Curiosity to Creative Idea





How to develop right brain and left brain ?

■ Through Education

■ ?



ANDY WARHOL



백남준,
Nam June Paik



Science & Technology

■ Science and Technology

- For industry, economy
- For health, food, energy, materials
- For security, safety

■ Science Mind

- Reasonable / Logical
- Practical

Grape Wine

■ Soil

■ Climate

- Sunshine During Day
- Cool wind During Night

* Napa Valley

* Vin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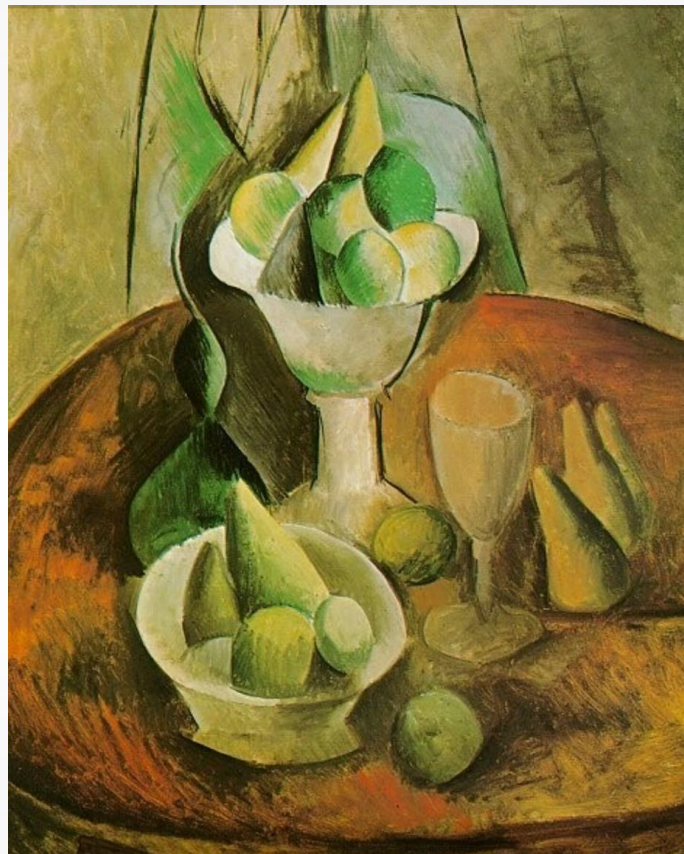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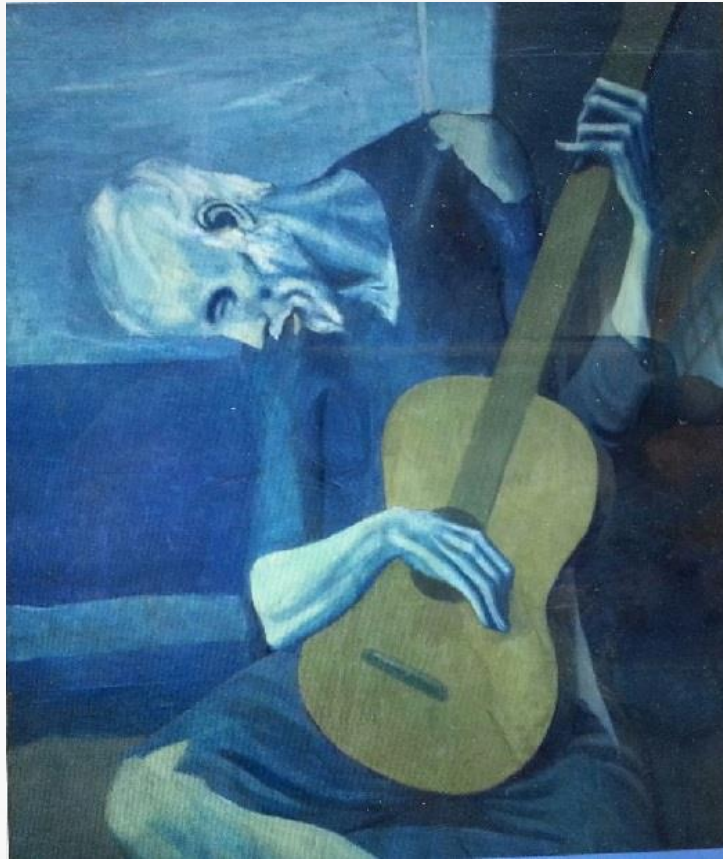
Taxol from Yew Tree
(주목)



Phytoncide from Hinoki Cypress
(편백나무)

From Concentration and Focused Endeavour





■ For Knowledge Creation

- Curiosity, critical thinking
- Creativity Development (Left, Right Brain)
- Concentration
- 자기만의 Color

인생의 성공은?

능력+(1) = 유능함+(2) = 전문성+(3) = 저명함

(1) 환경, 좋은 선생님

(2) 관계, 사회성 (네트워킹)

(3) 적극성 (PR), 도전의식, 리더십

(2017. 3. 창의성전문가세미나)

사회성, 적극성 ?

타인에 대한 관심

- 손해가 아니다.
-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다.
- 인생의 기쁨의 하나.
- * Being for others.

Global Mind

- Understanding Global Issues
- Understanding Global Cultures
- Strategy for Win-win Growth

Science and Technology

- For industry and economy development
- For public health, food, energy, and environment
- For defense & security
- For our neighbours



Scientists and Engineers Without Borders (2009.12)



뜻 : 조그만 점(노력)이 모여 아름답고, 완전한 지구(촌)가 된다

yiyoo@snu.ac.kr

www.sewb.org





글로벌 시대의 리더십 : 창의성, 봉사

우리의 사회공헌 DNA

- 일제시대 : 문해교육
- 1950년대 : 농촌 봉사 - 교육
- 1970년대 : 달동네야학, 노동운동
- 1990년대 : 환경운동, 농촌일손돕기
- 2010년대 : 개도국봉사

* 우리나라 청년 : Creative Minority



글로벌 시대의 리더십 : 창의성, 봉사

행복에의 길

■ 글로벌 시대의 흐름 : 지식 창출 / 문제 해결

- 기본은 창의성
- 창의성의 시작은 호기심 / 비판적 사고

■ 창의성의 완성은 적극적 사고

- 적극적 사고 : 이웃에의 관심과 봉사

yjyoo@snu.ac.kr

제3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제3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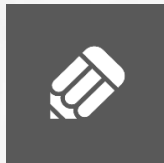
제3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제3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이공계 분야

사회문제 해결과 과학기술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위진 단장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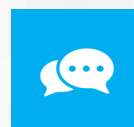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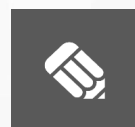
송위진

STePI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사회기술혁신연구단

목차

- 01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등장 배경
- 02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정의와 사례
- 03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의의
- 04 발전방향과 과제



"우리는 이제 '세계 최고의 과학'보다 '세계를 위한 최고의 과학'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모르텐 스테가드(Morten Østergaard) 덴마크 고등교육부 장관은 2012년 4월 23일 덴마크 오덴세에서 열린 '대화의 과학'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다. 이제는 첨단과학기술을 중심에 둔 '세계 최고의 과학(the best science in the world)' 경쟁보다 세계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중심에 둔 '세계를 위한 최고의 과학(the best science for the world)'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뜻이었다.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꾼 명연설로 지금까지 널리 회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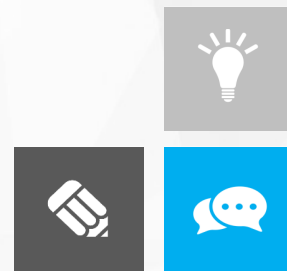
(자료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7277>)

과학기술혁신을 보는 프레임

	혁신정책 1.0	혁신정책 2.0	혁신정책 3.0
혁신을 바라보는 관점	선형적 관점	혁신체제론	시스템 전환론
정책목표	경제성장	경제성장	경제성장, 삶의 질, 지속가능한 발전
혁신정책의 영역	부문정책 (sectoral policy)	여러 영역과 관련된 정책 (multi-sectoral policy)	여러 영역과 관련된 정책 (multi-sectoral policy)
정책의 주요 관심영역	policy for science	policy for innovation -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설계 - 혁신친화적 고용정책, 금융정책	"Policy for Innovation" +"Innovation for Policy" 사회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형 혁신정책 경제사회 발전 비전을 설정하고 그에 입각해서 각 분야의 혁신정책들을 통합
혁신정책에 참여하는 주요 주체	과학기술계	과학기술계, 경제계	과학기술계, 경제계, 사용자 및 시민사회

CONTENTS 01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등장 배경



01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등장 배경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연구

경제, 사회환경의 변화

- 저성장, 낙수효과 소멸, 양극화
- 고령화, 기후변화, 안전문제 등 새로운 사회문제의 등장
 - ✓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
 - ✓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 (Societal Challenge)
 - ✓ 지속 가능한 전환 (Sustainability Transition)

01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등장 배경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연구

Challenge-driven Innovation Policy

Challenge-driven Innovation

Activities Updated: 12 January 2017

Vinnova is moving towards a challenge-driven strategy. The rationale for this shift is the globalisation of knowledge, technology and capital flows. This has enabled new sources and forms of competition and opened up new markets and opportunities for the creation and delivery of innovations.

To remain competitive, Swedish industry, like that in many other countries, has been forced to move up the value chain and embrace innovation, entrepreneurship and collaboration in new ways.

Moreover, Sweden is facing a number of social challenges that will have a strong impact on economic performance, such as an ageing population. At the same time,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address global challenges like climate change, health, pollution, resource depletion etc. New, innovative approaches are urgently needed to meet these challenges.

In response to the above described conditions, Vinnova has decided to develop a new strategy that is more suited to address the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is challenge-driven strategy derives from the important social and societal challenges driving the development of innovations and bringing global market opportunities. In contrast to science and technology-led initiatives, Vinnova's strategies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 Addressing essential or critical needs in society and industry. These needs require users/ customers whose demand for solutions incentivises them to engage in developing and testing new solutions. Co-creation is a critical success factor.
- Promoting new, cross-sector collaborations to find solutions to the needs; solutions to social and societal challenges are rarely found in one traditional sector or a single research field. New collaboration patterns are emerging between actors in different value chains; for example 'green urban transportation' is being developed at the interface between energy, automotive engineering and ICT.
- Fostering systemic approaches which address different social subsystems, framework conditions, political, commercial, technological subsystems, etc.

The principal anticipated outcome of the challenge-driven strategy is:

- Improved impact on sustainable growth.
- Less fragmentation and improved operational focus and resource mobilisation.
- Innovative cross-sector solutions to unleash as-yet undiscovered innovation opportunities on the market.
- Increased demand-driven innovation initiatives which balance traditional supply-based science and technology schemes.

Vinnova's challenge-driven innovation areas

Vinnova has currently focused its strategy on four social challenges which drive the development of innovations with international potential. The choice has been based on the Agency's mission – innovation-led sustainable growth in Sweden – and its new role – to connect and catalyse actors involved in the creation and delivery of innovations.

01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등장 배경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연구

공공연구부문의 새로운 역할 정립 필요

-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민간부문의 성장과 발전
- 민간혁신 주체의 발전에 따라 **공공연구부문의 새로운 역할 필요**
 - ✓ 산업지원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 확립 필요
 - ✓ 공공성 확립을 통한 대학, 출연(연)의 위상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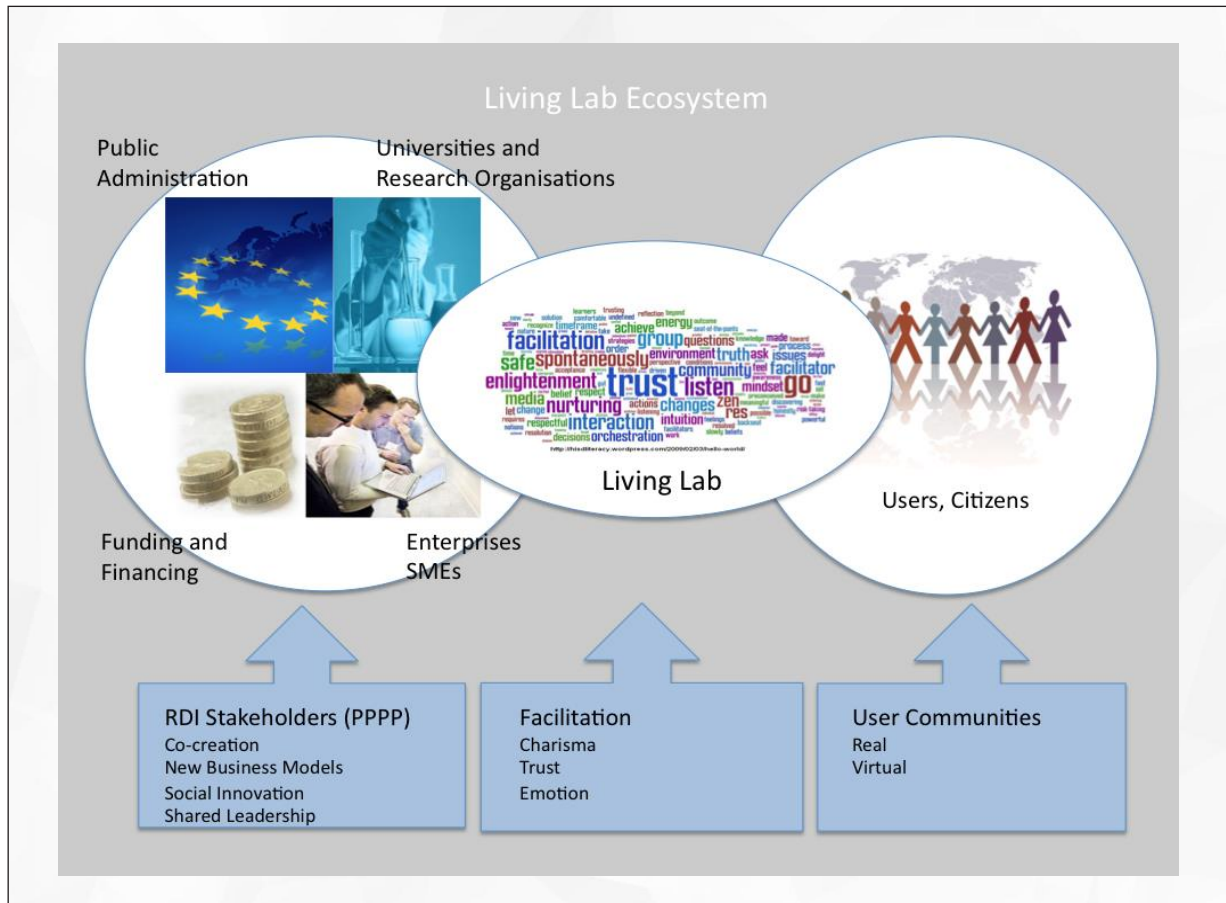
01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등장 배경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연구

시민사회의 능력 향상

■ 디지털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정보, 지식 접근 능력 및 활용능력 향상

-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메이커 운동
- ✓ 시민사회의 능력을 활용하는 Citizen Science
- ✓ 사용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실험공간인 Living 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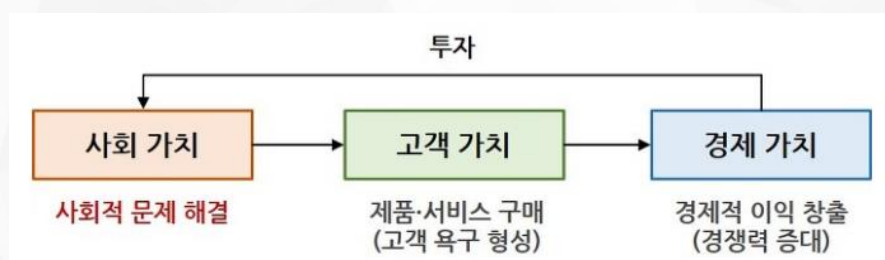




01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등장 배경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연구

공유가치창출형 비즈니스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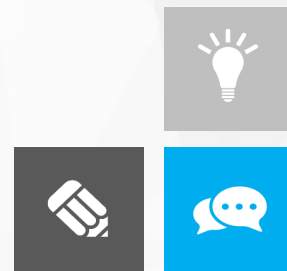
- '사회문제 발생자'에서 '사회문제 해결자'로서의 기업
-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여 수익 창출



(자료: <http://capzzang.tistory.com/67>)

CONTENTS 02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정의와 사례



02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정의와 사례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사회혁신)의 정의

- ✓ '사회혁신'은 보건복지, 의료, 교육, 위생, 환경, 안전 분야 등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구현하는 활동
- ✓ 사회-기술혁신 (Socio-technical Innovation)

■ 혁신의 유형

	사회혁신 Social Innovation	산업혁신 Industrial Innovation
조직/서비스 기반	개방대학 폐자원의 Up-cycling BIZ	결혼중매 서비스
기술 기반	백신기술 빅데이터 기반 교통시스템	IoT기반 가정 자동화 휴대폰 개발

소셜벤처 엔젤스윙

“드론(무인항공기)을 활용해 쪽방촌 등 취약지역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밀한 생활환경 지도를 만들자. 이를 토대로 관공서와 엔지오 등이 취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벌이면 좋겠다.”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서울시가 시민 아이디어를 제안받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누리집이다.

글을 올린 이는 서울대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던 박원녕(25·미국 조지아 공대) 씨다. 그의 제안은 드론의 기술적 가치가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경험에서 비롯됐다.

미국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씨는 2015년 1학기에 서울대 벤처경영학과와 '창업실습론'을 들으며 '엔젤스윙'이라는 프로젝트를 팀을 만들었다. '천사의 날개'라는 뜻 그대로 세상을 날며 도움을 주자는 마음이 담긴 이름이다. 그해 4월 네팔에서 발생한 7.8 규모의 대지진이 엔젤스윙 탄생의 계기가 됐다. 대지진은 사망자만 8000여 명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를 냈다.

마침 미국 대학에서 무인항공기 공부를 했던 박씨는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 피해 지역을 정밀하게 확인하면 복구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고, 수업을 함께 들던 서울대생 건술이(25·정치외교학부) 씨, 교환학생 서지숙(22·캐나다 워털루대) 씨 등이 흔쾌히 동의했다. 드론을 직접 만들고, 정밀지도를 만드는 '맵핑'(mapping)이 엔젤스윙의 큰 방향이 된 것이다.

엔젤스윙은 석 달 만에 드론을 만들어, 지난해 8월 네팔 카트만두대학에 전달했다. 지난 1월에는 다시 네팔을 방문해 성능이 개량된 드론을 이용해 10~20명이 한 달간 쓸 수 있는 주사기·백신·진통제가 담긴 의약품 상자를 오지 마을에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자신감이 생겼고,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세계 빈민가 정밀지도'(World Slum Map)를 만들어 보자는 꿈이다.

엔젤스윙은 그 첫 출발점으로 서울대 인근 관악구 삼성동의 쪽방촌을 잡았다. 박씨 등은 서울대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12월 17일부터 고화질 카메라를 단 드론으로 삼성동 판자촌을 촬영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주민 참여는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 서울시와 손잡고 정밀 지도를 제작한 엔젤스윙(왼쪽부터 건술이, 박원녕, 서지숙)이 14일 오전 관악구 삼성동 쪽방촌 뒤편 골에서 드론을 띄우고 있다. 사진 강수선 인턴기자 grimlike@hani.co.kr

SAFECAST

[ABOUT](#)
[MAPS](#)
[DATA](#)
[FAQ](#)
[DONATE](#)
[HOW TO HELP](#)
[MAILING LIST](#)

[English](#)
[한국어](#)

[Safecast X Shutleworth](#)
[Anniversary & Conference](#)
[Development: Real-Time Interpolation](#)
[Safecast OS X](#)
[Updated Safecast Webmap!](#)

ABOUT SAFECAST

Safecast is a global project to empower people with data, primarily by mapping radiation levels and building a sensor network, enabling people to contribute and freely use the data collected.

[Learn More](#)

OUR PROJECTS

Safecast is a global sensor network for collecting and sharing radiation measurements to empower people with data about their environments.

[Learn More](#)

DONATE

Safecast is made possible entirely thanks to tax deductible donations from people like you. We are a registered US 501(c)3 non profit organization.

[Learn More](#)

에너지 자립 윤데 마을 (Juehnde Vill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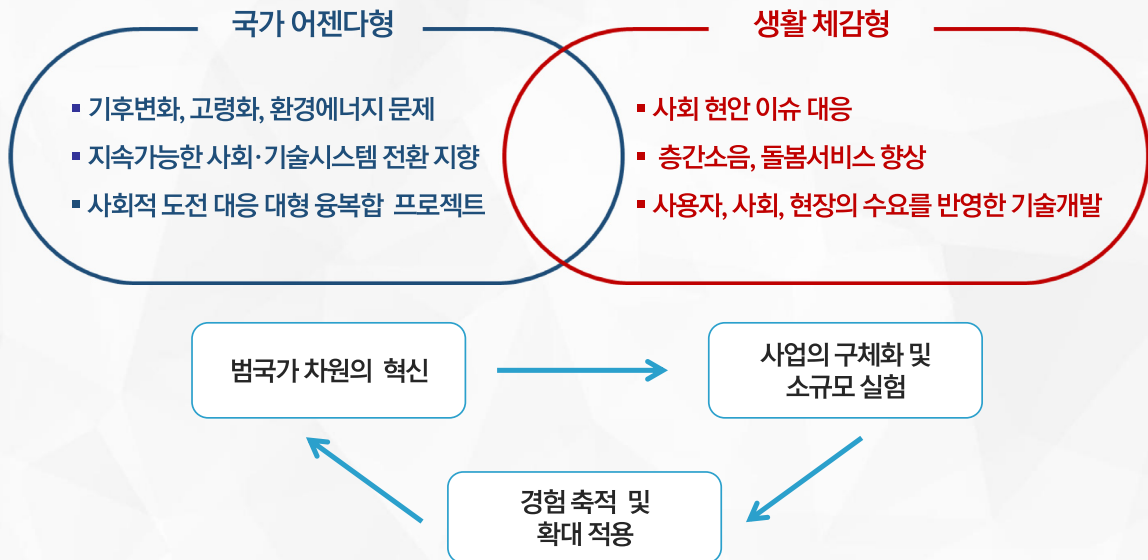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 개요

비전	과학기술로 깨끗한 대기환경 실현과 신산업 창출을 동시 지원		
핵심 목표	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효과적 근본적·과학적 수단 확보 ② 미세먼지대응 신산업 창출 지원 강화 ③ 정부 R&D의 효율성 제고 및 전략적 투자 강화		
패러 다임 전환	① 관리 용이성(PM ₁₀ , 1차 배출) 중심 → 위생성(PM _{2.5} , 2차 생성) 중심 ② 환경 vs 산업 → 환경+산업(미세먼지대응 신산업 육성) ③ 미세먼지대응 R&D 관리체계 미비 → 철저한 기술관리		
추진 단계	현안대응('17~'19) 현안해결에 시급한 정보 및 수단 확보 (초미세먼지 생성원인 규명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등)	적용·실증('20~'21)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현장 적용·실증 (초정밀 센서 사업장 배출저감 기술 등)	성장도약('22~'23) 기술 확산 및 산업화 글로벌 진출 성과 창출 (기술7면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 국내 시장 규모 해외 수출 확대 등)
부문(3)	핵심 과제(11)		
미세먼지대응 중점기술 개발	1. 미세먼지의 발생·유입 규명 2. 신속·정확한 측정·예보 기술 확보 3. 고효율 집진·저감 시스템 개발 4. 국민보호·대응 기술 개발		
기술 산업화 및 글로벌 협력 강화	1. 미세먼지대응 기술혁신 촉진 2. 미세먼지대응 협업 생태계 구축 3. 국내 환경기술의 글로벌 진출 지원 4. 미세먼지 국제연구협력 주도		
정부 R&D 중장기 투자 효율화	1. 미세먼지대응 기술 개념 및 분류체계 마련 2. 부문별 투자전략 설정 3. 미세먼지대응기술 관리 강화		

02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정의와 사례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순환



02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정의와 사례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

■ 범부처 사업

- ✓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 계획’에 의거한 사업
- ✓ 다부처 사업으로 15개 사업 진행

■ 각 부처,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유사 사업

- ✓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 ✓ 사회서비스 R&D
- ✓ 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지원사업 등

일반 R&D사업과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의 차이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구 분	일반 R&D	사회문제해결형 R&D
최 종 목 표	• 기술고도화 / 경제적 성과 창출	• 사회문제해결
발 굴	• 해당분야의 기술과 사업화에 대한 전문가 중심(연구자, 기업 등) 참여	• 사회문제의 당사자인 사용자(국민), 해결방법을 연구·개발하는 연구자·기업, 해결의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가 함께 참여
기 획	• 전문가 중심의 기술고도화 기획 •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화 과정 고려	• 최종 사용자, 연구자·기업 등이 동참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고려한 '사회문제·기술개발 통합 기획' 실시 • 법·제도개선, 전달체계까지 고려
운 영 관 리	• 기술고도화,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한 R&D 전문가 위주의 협업 시스템 구축·운영 ※ 산·학·연 삼중나선 구조	• 연구성과물(기술, 제도, 전달체계)이 실질적인 문제해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종 사용자와의 상시 피드백 시스템(리빙랩 방식) 운영 ※ 민·산·학·연 사중나선 구조
평 가	• 기술적·경제적 성과(논문, 특허, 매출 등)를 중점적으로 평가	• 사회적 영향(문제해결정도, 사용자 평가, 파급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성 과 활 용 확 산	• 우수기술 확보·향상 •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성과 창출 ※ 영리기업 주도	• 정부주도 제도개선, 공공구매 • R&D성과물 사업화를 통한 문제해결 ※ 사회혁신기업* 주도 • 우수 해결사례의 보급·확산

* (사회혁신기업) 사회문제해결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소셜벤처, 사회적경제조직, 공유가치 창출형 기업 등을 지칭

Introduction: 과제 개요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안질환 선별검사용 휴대용 안저 카메라 개발

- 실명의 원인인 망막 질환은 조기 발견을 통해 예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음
- 기존의 안저카메라는 고가의 장비로 공공의료기관에 구비가 어려우며, 특히 장애인/소아에게 유용한 휴대형 안저카메라는 가격 접근성이 매우 높음
- 본 과제는 휴대형/보급형 안저 카메라의 개발을 목적으로 함

(자료 : 윤찬영, 오마이뉴스, 2016.10.27)

이화여자대학교 김윤택 교수가 두 번째 발표를 이어갔다. 김 교수는 의료 취약 계층이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보급형 안저카메라를 개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한 1, 2, 3차 의료기관, 의료복지협동조합과 공공의료기관, 한국망막학회와 같은 전문가집단 그리고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용 경험을 들어가며 꾸준히 시제품을 개선해오고 있다.



▲ 김윤택 교수가 개발중인 안저카메라 시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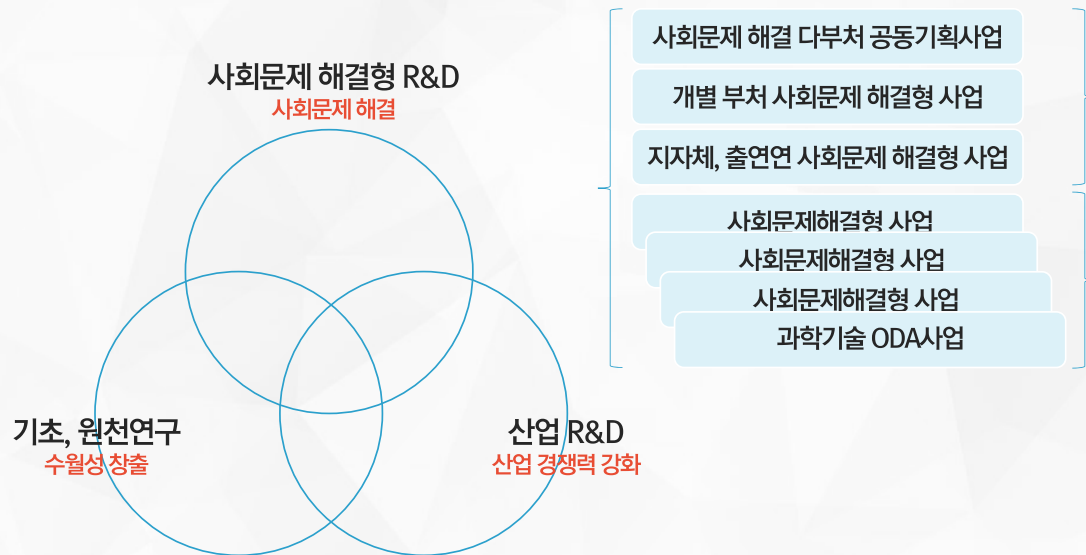
© 김윤택

관련사진보기

"내가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리빙랩을 해보니 사용자의 패턴은 너무도 다양했고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도 많았다. 리빙랩은 중간중간 계속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맨 마지막 결론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 또 사용자가 의미 있는 의견을 내기까지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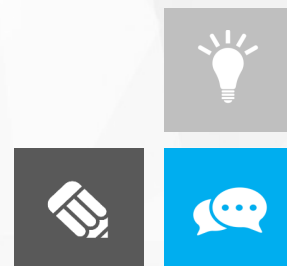
02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정의와 사례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위상 변화



CONTENTS 03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의의



03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의의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연구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재해석

■ 혁신정책의 프레임 전환

- ✓ 산업혁신에서 사회혁신으로 핵심 목표 전환
-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혁신정책
 - 양극화 극복, 지속가능한 식품, 주거, 교육, 교통시스템 구축, 공동체 회복, 환경 개선을 지향하는 혁신정책
 - 좋은 성장: 사회통합형 성장, 환경친화형 성장, 고용창출형 성장
- ✓ 수요에 기반한 탈추격 (Post Catch-up) 혁신

03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의의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연구

새로운 혁신주체의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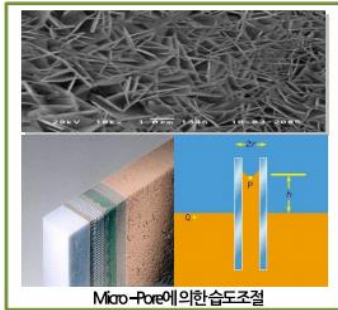
■ 새로운 혁신주체인 사용자 참여 촉진

- ✓ 시민사회, 사회혁신조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 공유가치창출형기업)
- ✓ 지자체, 공단, 공기업, 사회정책부서, 공공조직

■ 산학연과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조직, 공공기관의 협업을 위한 기반 구축

- ✓ 리빙랩과 같은 사용자 참여형 혁신모델의 발굴, 활용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습도조절 건축자재 개발



Micro-Pore에 의한 습도조절

저가보급형 친환경 세라믹 패널-도로 개발

- 비소성형 패널기술개발을 통한 비용절감
- 소재제조공정개선을 통한 보급형 기술개발
- 다공성 미세구조 제어기술로 흡착성능개선



Mock-up 실물실험/리빙랩 성능평가

보급확산을 위한 시공기술개발·신뢰성 검증

- 세라믹패널-도로 간편정착시공법개발
- 세라믹패널-도로 공사시방서 작성
- 실물실험평가/리빙랩을 통한 성능최적화



사용자주도형 리빙랩 운영양산 보급화

공공보급 확산을 위한 방안 연구

- 사용자주도형 리빙랩 상시운영체계구축
- 양산화를 위한 공정최적화 및 품질인증
- 공공성 확보 위한 생산·보급체계고도화



습도조절 기술 개발을 통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사회적 격차 해소 기여



03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의의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과 새로운 지역혁신정책의 탐색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정책

- ✓ 지역 기술개발이 아니라 지역사회문제 해결에서 출발하는 혁신정책
- ✓ 지역의 소득, 고용, 복지, 환경, 에너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정책
 - 농업산업혁신 vs 농촌사회혁신
 - 도시산업혁신 vs 도시사회혁신

■ 분산화를 넘어 분권화를 지향하는 혁신정책

03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의의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연구

SW 융합기반 지역사회문제 해결 방안(안)

강원도 SOS-W(Winter Sportainment)	대전광역시 SOS-S(Safety)	광주광역시 SOS-E(Energy)	울산광역시/전라남도 SOS-S(Safety)	경기도 SOS-H(health)
동계스포츠+관광융합-City	씽크홀 Zero-City	지능형 Energy City	석유화학산업 Safety City	국민건강 행복도시
				
충청북도 SOS-A(Agro-livestock)	부산광역시/경상남도 SOS-S(Silver Industry)	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 SOS-T(Traffic) / SOS-W(Water)	전라북도/제주도 SOS-T&C(Tour & Cluture)	경상북도/충청남도 SOS-A&F(Agriculture & Food)
가축질병 Zero City	노인복지 #1 City	더위: 교통 및 물 문제 해결	관광 및 전통문화 융합	농업의 6차산업화
				

(자료: SoS 사업 기획안, 2017)

03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의의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연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형 인력양성

■ Socio-technical Innovation을 위한 인력양성

- ✓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법제도 개선과 기술혁신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능력 양성
- ✓ 대학교육부터 통합적 접근이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Challenge-driven University

03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의의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과 새로운 혁신 하부구조 구축

■ 사용자가 참여하여 문제를 구체화하고 함께 해결하는 기반 구축

- ✓ Living Lab, Fab Lab 등의 활성화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모색

- ✓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조직, 시민사회 조직과 과학기술을 연계하는 플랫폼의 모색
- ✓ 서울 혁신 파크, 리빙랩 플랫폼 사업

덴마크의 Egmont Living Lab

■ 배경 및 활동

- 보조기술(assistive technology) 영역에서 사용자 주도형 혁신을 구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공공 프로젝트인 HandiVision Project의 일환으로 Living Lab 설치
 - 이 프로젝트에는 기업, 장애인 관련 기관, 연구기관이 참여
 - 혁신의 전과정(제품개발에서 제품 시험, 기존 제품 개선)에 사용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보조기술 개발을 좀 더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탐색
 - Living Lab은 보조기술 영역에서 공공·민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기능
- 장애학생을 위한 Egmont 학교(Egmont folk high school)를 Living Lab으로 지정하고 Innovative User 과정을 운영
 - Egmont 학교는 고등학생들이 4~10개월 정도 머물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경험을 쌓은 기숙학교임
 - 덴마크 장애인 단체가 설립했으나 일반 학생들도 재학하고 있으며 장애학생들의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HandiVision Project의 일환으로 The Innovative User 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참여적 설계방법과 소통방법 교육

■ 사용자 참여 사례

- 조이스틱을 탑재한 전동휠체어 개발
 - Innovative User 강의의 일환으로 Egmont 학교 장애학생들이 Aabentoft라는 전동휠체어 회사를 방문
 - 이 과정에서 학생이 소니의 Play Station 게임을 할 수 있는 조이스틱이 부착된 휠체어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 이 제안을 받은 회사는 사업 가능성을 보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했고 장애학생들이 제품을 시험. 이 때 인류학자가 참여하여 학생들이 게임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관찰하고 제품 개선 활동을 수행



한국시니어리빙랩 목적

- 시니어 사용성 평가단, 시니어케어인력, 연구자, 생산자 및 체험관 인프라 (장비·공간)가 한군데 집결되어 체험관 자체가 시니어 제품 개발을 위한 리빙랩으로, 소비자 중심의 연구개발 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

VISION : 국내 고령친화산업 기술 고도화



혁신 한번 해볼래?

총 지원금 5억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 프로젝트를 공모합니다.

서울의 혁신을 위한 시민의 실현, 서울혁신파크가 지원하겠습니다.

2017 사회혁신 ×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

응모분야: 서울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사회혁신 실현(자유주제)

접수기간: 2017년 5월 1일~24일(18:00 마감)

실험수행 기간: 2017년 6월 1일~11월 30일(6개월간)

공모설명회: 2017년 5월 12일 오후 4시,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2층 모두모임방

소셜디자인 기술혁신랩

5월 교육일정안내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술혁신랩에서는 사회적 경제 분야/업종 공동의 생산 혁신과 전문적 협업 기반 조성 및 사회문제 해결의지와 역량 있는 기술/제조가반 신규 주체 발굴과 교류, 협업, 실험 지원 등을 위해 역량강화 기초교육을 시작합니다.

교육 개요

2017년 5월16일(화)~5월25일(목) 총 12시간/2주

교육 장소 서울 중로구 청계천로 163 아세아 전자상가 3층 SE-Cloud 기술혁신랩

교육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 창업 준비팀, 소셜 벤처
- 세운 상가 활동 단체 등

기존인원 10명 신청은

교육 커리큘럼

일시	과목	진행내용	강사
5/16(화) 13:00~15:00	3D 프린트 교육	① 3D프린팅의 이해 ② 3D를 통해 나만의 일러스트로 제작 ③ 3D프린팅 비즈니스 모델 사례/출력 해보기	그림 놀이 이준성 대표
5/23(화) 13:00~15:00	레이저 커터 교육	① 레이저 커터의 작동방법 및 유의사항 ②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한 도안제작 ③ 재료별 커팅, 마킹(마크), MDF소통 만들기	그림 놀이 이준성 대표
5/16(화) 16:00~18:00	레이저 커터 교육	① 레이저 커터의 작동방법 및 유의사항 ②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한 도안제작 ③ 재료별 커팅, 마킹(마크), MDF소통 만들기	그림 놀이 이준성 대표
5/23(화) 16:00~18:00	레이저 커터 교육	① 레이저 커터의 작동방법 및 유의사항 ②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한 도안제작 ③ 재료별 커팅, 마킹(마크), MDF소통 만들기	그림 놀이 이준성 대표
5/18(목) 13:00~15:00	CNC 라우터 교육	① CNC라우터의 작동방법 및 유의사항 ②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한 도안제작 ③ MDF로 소품 만들기	그림 놀이 이준성 대표
5/25(목) 13:00~15:00	CNC 라우터 교육	① CNC라우터의 작동방법 및 유의사항 ②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한 도안제작 ③ MDF로 소품 만들기	그림 놀이 이준성 대표

*5월은 운영시간 변경 및 이용자 확대를 위해 기본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교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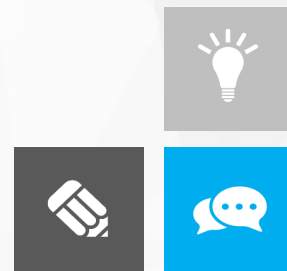
신청 방법 소셜디자인 기술혁신랩 역량 강화 기초교육 참가신청 링크
bit.ly/2pkVn90

문의 전화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기술혁신랩 070-4267-5047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N SOCIAL ECONOMY CENTER

CONTENTS 04

발전 방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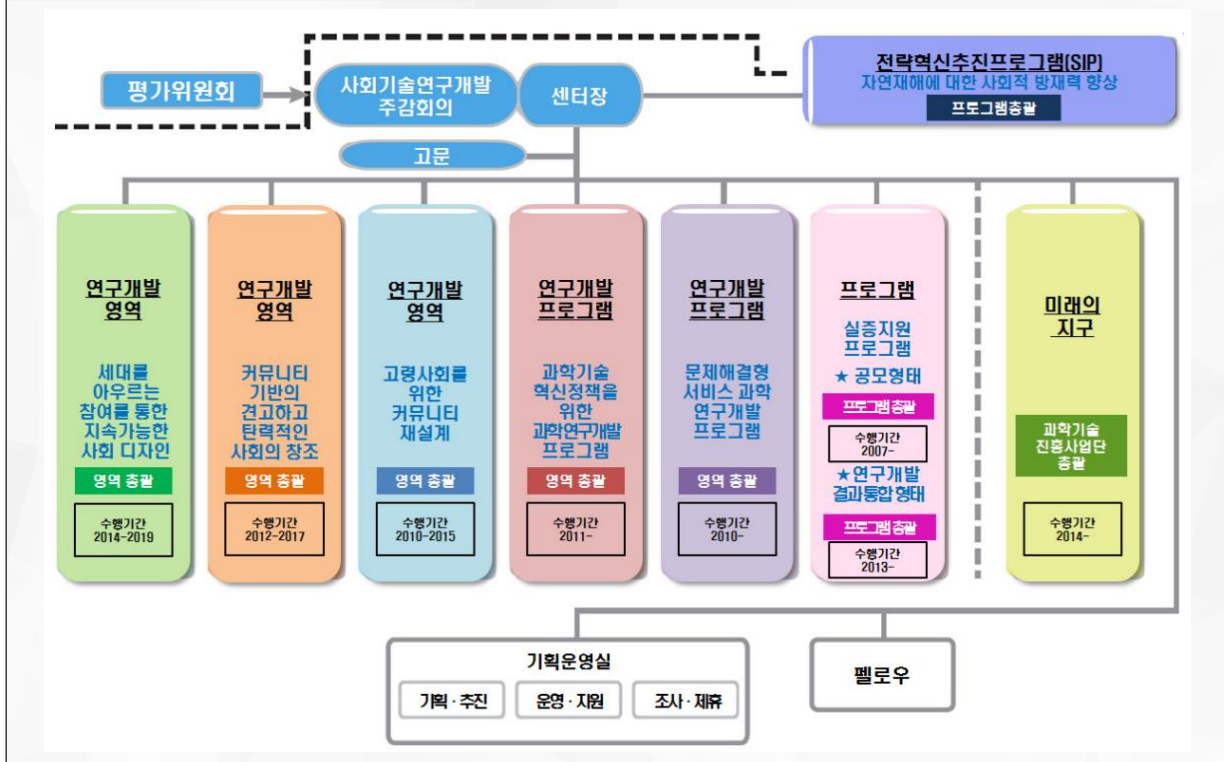
04 발전 방향과 과제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연구

발전 방향 1

■ 시스템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중범위 수준의 영역별 사업군집 구성

- ✓ 서로 연결된 문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영역을 설정하고 ‘군집된 과제(Clustered Project)’ 수행
 - ‘주거복지문제’, ‘돌봄서비스’(예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제로 구성된 ‘연구영역’을 구성해서 사업 추진
 - 장기적 관점에서 **시스템 전환**의 틀 도입
- ✓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 사용자 그룹, 인프라, DB,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혁신플랫폼 구성
- ✓ 학습을 통한 축적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

(참고) 일본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사업



04 발전 방향과 과제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연구

발전 방향 2

■ 최종 사용자의 체계적, 지속적 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 공공적이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조직화된 사용자 그룹' 참여 유도
 - 민원제기를 넘어 파트너로서 연구영역의 발전을 같이 숙의하는 사용자 조직의 참여 유도
 -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조직, 시민사회 중간조직, 사회적 기업진흥원과 같은 중간지원조직 활용
- ✓ 사용자 그룹과 관리기관, 정부, 관련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과사정 협의체 구축
 -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축
- ✓ 리빙랩과 같은 사용자 참여형 프로그램 확산

04 발전 방향과 과제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연구

발전 방향 3

■ 인프라 구축

- ✓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충
 - 기획자, 사업관리자, 관련 연구자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문제지향적 연구 개발을 위한 이공학 교육혁신 프로그램과 연계
- ✓ 참여형 연구수행을 위한 Tool 개발 및 확산
 - 예: EU의 RRI Tools

04 발전 방향과 과제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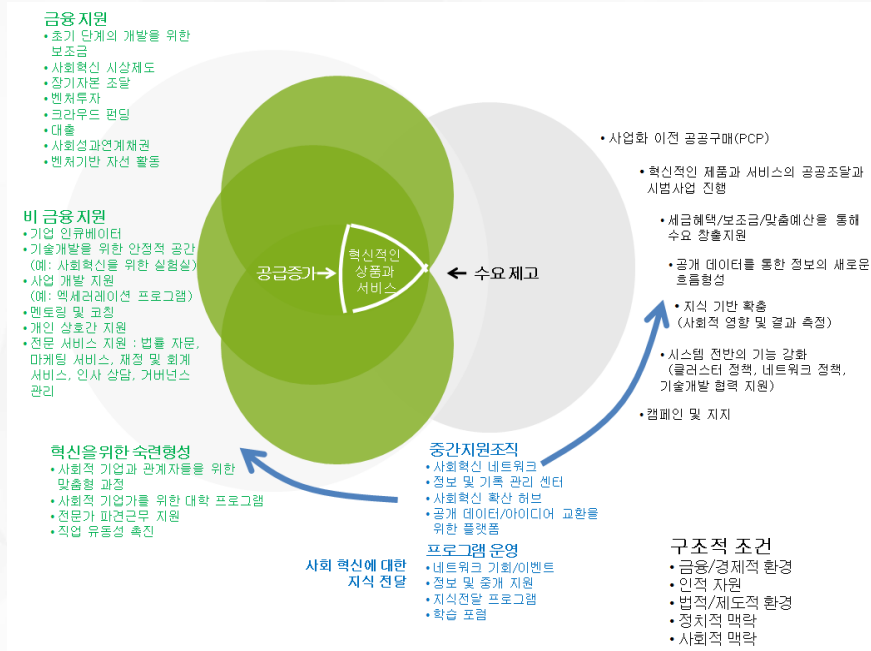
발전 방향 4

■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

- ✓ 소셜벤처,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기술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 ✓ 기술기반 사회혁신 클러스터 사업과 같은 과학기술 - 사회혁신 생태계 연계사업 추진
 - 예 : 성수 소셜벤처밸리, 서울혁신파크와 협력사업 추진

04 발전 방향과 과제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연구

발전 방향 4



감사합니다

관련 자료는 다음에서 참조하세요.
과학기술 + 사회혁신
<http://blog.naver.com/sotech2017>

제3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제3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제3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인문학 분야

사회공헌 철학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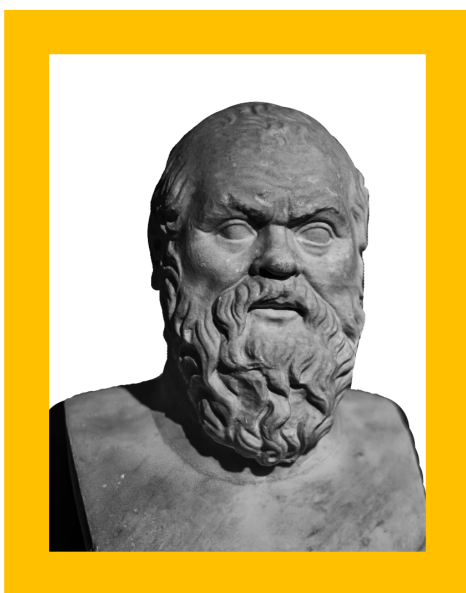
- 연세대학교 김형철 교수 -



사회공헌과 철학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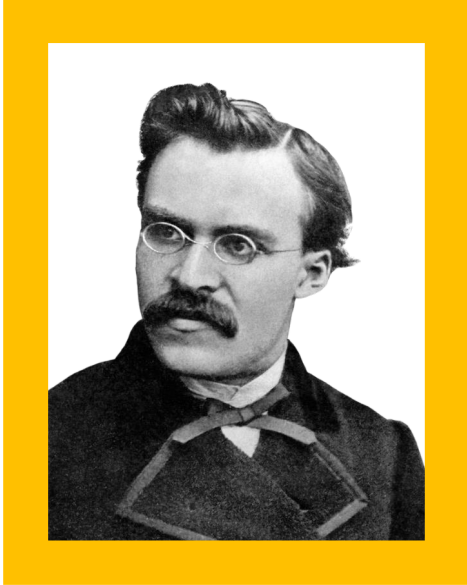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형철
khc602@gmail.com

소크라테스



- ◆ 모르면 물어봐라
- ◆ 너 자신을 알라
- ◆ 질문의 힘을 믿어라
- ◆ 스티브 잡스
- ◆ 도사가 말한 인생의 목적은?
- ◆ 세계최고의 전투함과 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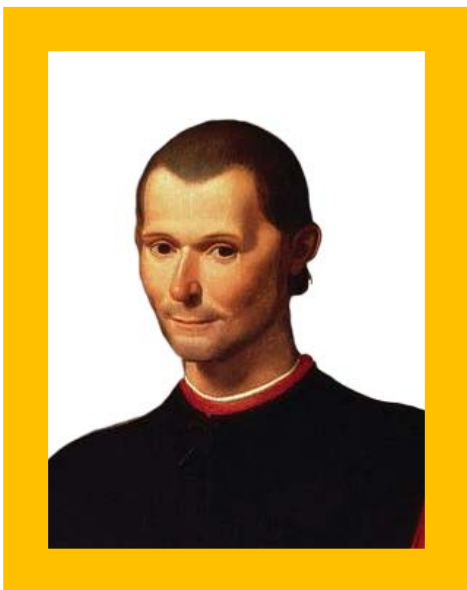
니체



◆ 자신에게 명령하라

◆ 사자, 낙타, 아이

마키아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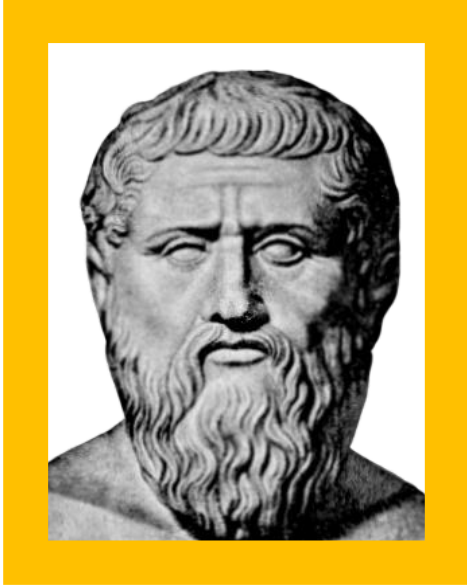


◆ 쓴소리를 즐겨라

◆ 미국의 IT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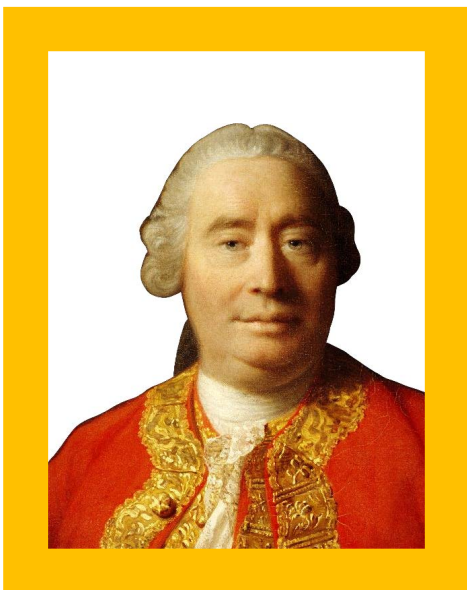
◆ 리더의 그릇의 크기는?

플라톤



- ◆ 태양을 보라
- ◆ 동굴의 우화
- ◆ 토끼와 거북이

데이비드 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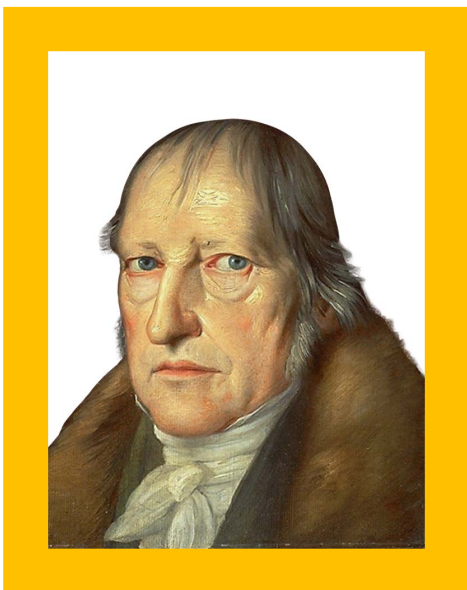
- ◆ 서로 공감하라
- ◆ 독수리와 개구리
- ◆ 천당과 지옥, 그리고 젓가락
- ◆ 제약회사 사장과 부서장
- ◆ 40대에 천억을 번 비즈니스 맨

한비자



- ◆ 신상필벌하라
- ◆ 칭찬의 3법칙
- ◆ 야단의 3법칙
- ◆ 수주대토

헤겔



- ◆ 서로 인정하라
- ◆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 ◆ 정반합
- ◆ 직원 아들의 야구장갑

철학리더십 7계명

소크라테스	“모르면 물어보라”	
니체	“자신에게 명령하라”	
마키아벨리	“쓴소리를 즐겨라”	
플라톤	“태양을 보라”	
흄	“서로 공감하라”	
한비자	“신상필벌하라”	
헤겔	“서로 인정하라”	

1. 윤리의식 고취

TOSHIBA

TOSHIB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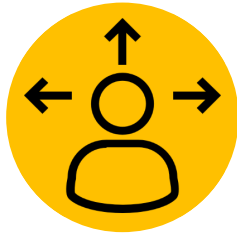
**SOCIÉTÉ
GÉNÉRALE**

소시에테 제네랄(SG) 은행

“윤리경영은 기업의 경영진만 하는 것이다?”

1. 윤리의식 고취

[나의 윤리적 의사결정]



- ◆ 윤리경영의 실천 기업 내 윤리 문화 구축
- ◆ 기업의 지속가능성 증가
- ◆ 직장인으로서 나의 생존

2. 문제상황에서의 해결방안 모색



스노우 우유의 식중독 사건

기업이 진정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가는
문제상황에서의 대처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3.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향상

[만약 나라면?]

- 고객업체가 가져온 양주 한 병 -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은 (현장직원 ㄸ)

선물은 **가슴을 선선하게 하는 것**이 선물이고,

뇌물은 **뇌(머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4. 윤리적 조직문화

[“왜 이런 결정을 내린거죠?”]

<상황>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의사결정을 한 당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변호사가 불법이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시스템자체가 불공평하게 되어있잖아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우리가 그 누구도 해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까지 쫓 그렇게 해왔어요.”

“나 하나 안 한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나 하나 이렇게 행동한다고 뭐 큰일 나나요.”

5. 기업활동과 윤리적 가치판단



벤앤제리의 환경마케팅



팀버랜드

- ◆ 기업의 CSR활동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투자”
- ◆ 윤리적 기업활동은 회사의 생존과 지속가능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6. 브랜드가치 인식제고

산토리의 de- marketing 사례



Suntory supports campaigns conducted to discourage such abuses as shooter drinking.

“술을 적게 마시자” 캠페인



Advertising employed in a moderation campaign encouraging sensible drinking

“술, 천천히 즐겨요” 캠페인

7. CSR

[성공적인 CSR을 위한 치키타의 5C+1S]

Conviction
신념

Commitment
책임감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

Consistency
일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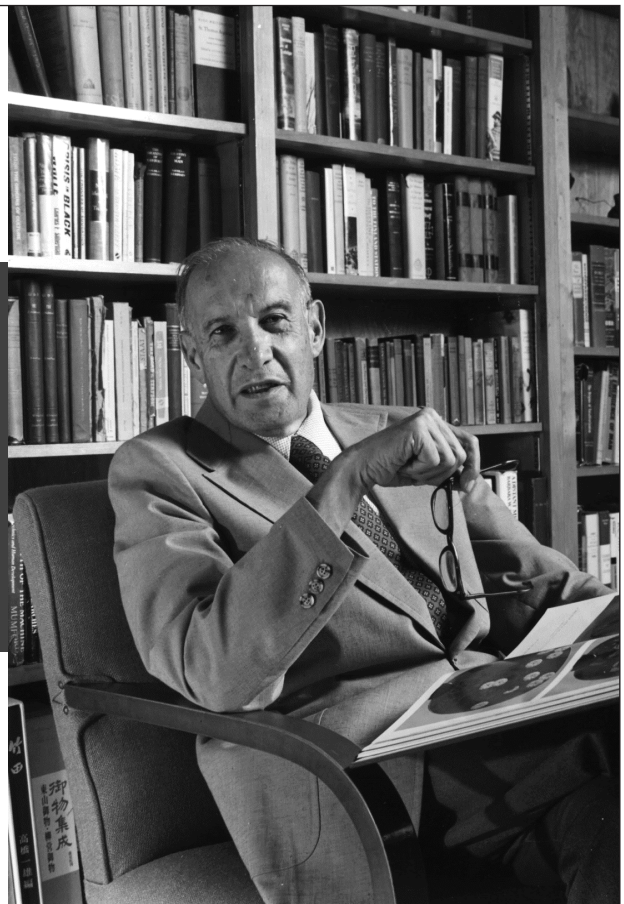
Credibility
신뢰



Strategic performance for Efficiency
전략적 실행

“가능한 일부터 시작하지 말고
옳은 일부터 시작하라.”

- 피터 드러커



제3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제3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제3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문화예술 분야

창의적인 네티즌 커뮤니케이터, 지속적인 공공 커뮤니케이션

- 광운대학교 이종혁 교수 -

창의적 네티즌 커뮤니케이터, 지속적 공공 커뮤니케이션.

이종혁 |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 공공소통연구소 소장 | **LOUD**, 총괄 디렉터

© 본 자료는 제3회 현대차 정몽구재단 대학(원) 학술세미나 문화예술분야 발표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강의자료에 사용된 내용 및 사진의 저작권은 이종혁 교수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 지속성장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건

일상^{의 변화}

日常 EVERYDAY LIFE

일상 속 주체

창의적 네티즌 커뮤니케이터

일상적 역할

지속적 공공 커뮤니케이션

창의적 넋지 커뮤니케이터가 수행하는 지속적 공공 커뮤니케이션이란?

COMMUNICATION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비판에서 시작된 '창의적 콜라보레이션'의 결과를 확산시키는 노력,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냄으로써 공공가치(public value)를 제고하는 실천,
'공공 커뮤니케이션'

COLLABORATION

커뮤니케이터는 '협력적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결과물을 생산하려는 주체,
이들 간의 '융합적 행위' 일체가 콜라보레이션

CRITICAL THINKING

'창의적 넋지'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기 주변을 바라보고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

LOU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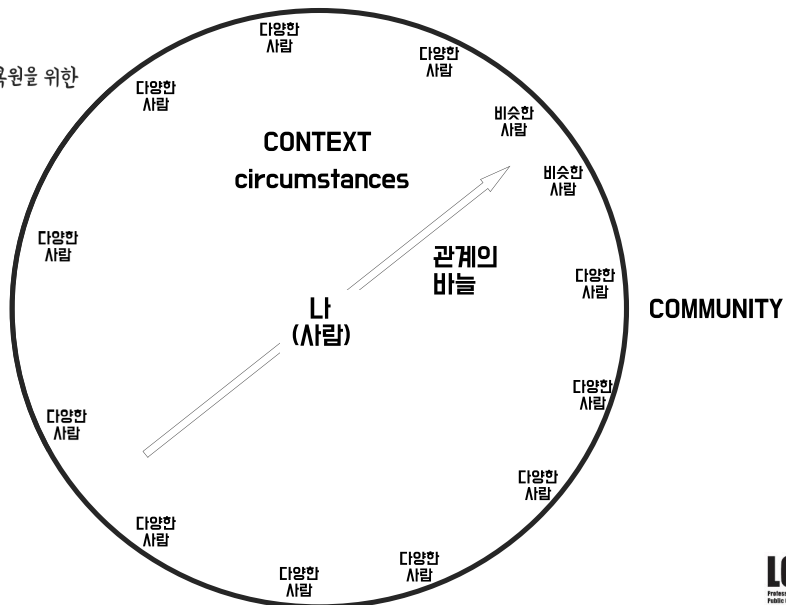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사회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지속적인 관계 복원을 위한
다양한 도전과 시도가 이어지는 사회

다양한 사람들의 존재감이
존중되는 사회

COMMUNICATION CLOCK

커뮤니케이션은 시계와 같이 멈춰서는
안되며 멈출 수도 없는 일상적 현상



© 이종혁

LOUD.
Producer Jeonhyuk Lee's
Public Communication Project



일상 속 문제를 보지 못하다.

©LOU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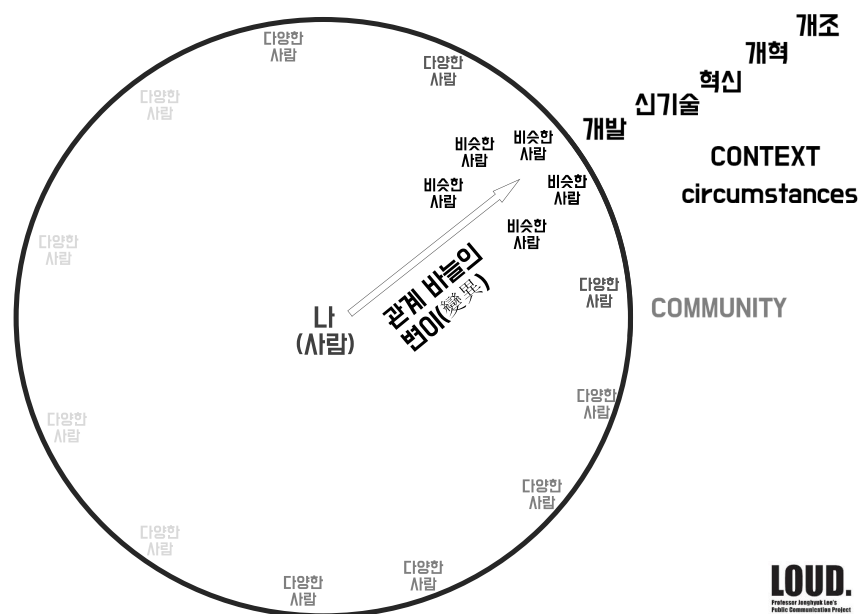
[대중 기반 사회]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준거 기준]에 대한 일방적, 암묵적 동의를 유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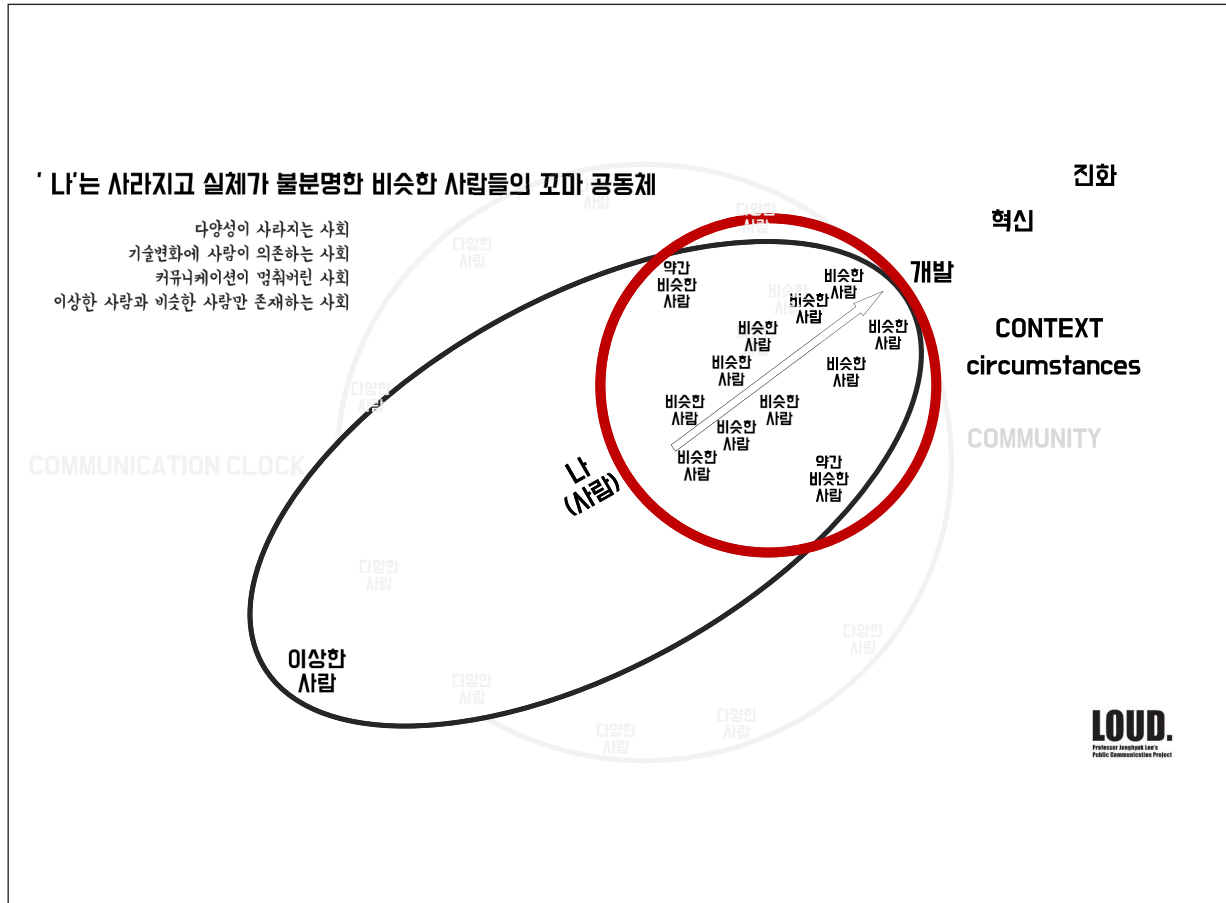
문제제기가 사라지고 실천하는 자들은 대중의 눈치를 보며 '성공'의 프레임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동체의 존재감 상실, 즉 **[관념 없는 공동체]**로 방치했다. ※출처: 이종혁(2017), 커뮤니케이터, 서울:소통공방, Pp. 14-15, 인용

COMMUNICATION CLOCK

'나'를 중심으로 한 관계와 소통이 아닌
'나'는 방관자가 되고 누군가 설정해
놓은 개혁, 개조, 혁신, 신기술의
대담론만 추종하는 수동적 주체.
그리고 그들이 다수가 되는
공동체의 출현

관계의 바늘이 연이된 공동체의
지속성장이란 사실상 불가능





SMART ?

뉴욕타임스는 김스가 자녀들에게 아이패드 금지령을 내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새로 출시된 아이패드를 자녀들도 좋아한다고 기자가 묻자,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써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김스의 전기를 집필한 월터 아이작슨도

"김스는 거북이굴 무덤에 있는 긴 식탁에 아이들과 둘러앉아 책과 역사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회고했습니다.

출처: 권성기(2014.09.12) 스티브 김스도 자녀에게 "스마트폰 사용 안 돼", MRN뉴스 인용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978118



[창의적 공동체 인식]은 넷지 커뮤니케이터의 기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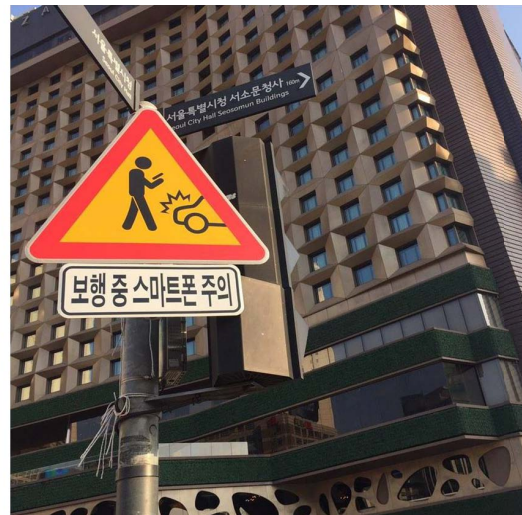
개인이 속한 공동체를 인식하는 정신작용 즉 공동체 내 문제를 바라보고 지적하여 [배려]를 목적으로 타인들과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공감을 이끌어 내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다. 거창한 봉사과 희생을 전제하는 의식이 아니다. ※출처: 이종혁(2017), 커뮤니케이터, 서울:소통공방, Pp. 96-97.



좀 더 스마트한 것은 결국 또 하나의 공공 과제를 제시해 준다.

누군가 설정해 놓은 어떤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준거기준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만 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시대 속 작은 가치와 행복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 [자각]은 커뮤니케이터의 시작점이다. 기존의 나와 또 다른 나를 깨닫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다.

※출처: 이종혁(2017), 커뮤니케이터, 서울:소통공방, Pp. 96-97.



© LOUD.

관습화된 무엇에 대한 작은 외침

관습화된 무엇에 대한 도전, 사회의 사각지대를 송곳같이 파고드는 실천적 소동. 지금 바로 여러분이 커뮤니케이터라고 자각하는 순간 자신이 표출하는 메시지는 독창적 작가주의에 기반한 프로페셔널리즘을 능가하는 아이추어리즘의 주체가 될 것이다. ※출처: 이종혁(2017), 커뮤니케이터, 서울:소통공방, pp. 100-101.



HotBlack Coffee in Toronto opened last year without Wi-Fi service for its customers. Christine Lim

© Christine Lim
※ source_ https://www.nytimes.com/2017/05/09/technology/coffee-shop-wifi-access.html?_r=0

커뮤니케이터의 협력 네트워크 = 대안사회

사람냄새나는 세상, 나를 드러내지만 그것이 곧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면서 예술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의 [지적 우월감]을 내려놓은 겸손한 힙스터 (humble-hipster)와의 만남이 느껴지는 곳

※출처: 이종혁(2017), 커뮤니케이터, 서울:소통공방, p. 45, 인용







© LOUD.

[대중 속 우리]가 아닌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자신]을 회복시키기

대중 매체(mass media)가 등장해 만들어 낸 대중문화 속에서 개인은 사라지고 대중만 존재하는 기현상이 일반화된 지 오래다. 대중 속 개인에 대한 [상식적 저항]이 바로 커뮤니케이터로서 자각(自覺)

※출처: 이종택(2017), 커뮤니케이터, 서울:소통공방, pp. 13-14, 인용



© LOUD x 경기남부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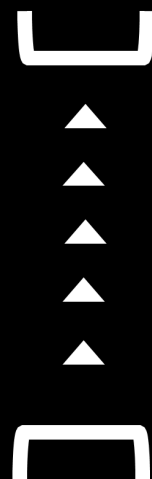


넛지 그리고 기호

사소하고 작은 요소라 해도 사람들의 행동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의 경험에서 도출한 유용한 한 가지 법칙은 '중요하지 않은 요소란 없다'는 것이다.

※출처: Thaler, R. H., & Sunstein, C. R. (2008). 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NY: Penguin Books.





사소하고 작은 요소라도 사람들의 행동방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CHOICE ARCHITECT (선택 설계자) = 정황이나 맥락을 만드는 사람

※출처: Thaler, R. H., & Sunstein, C. R. (2008). 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NY: Penguin Books.





합리화(rationalizing)?

인간은 합리적 (rational)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 하는 존재라는 ...

※출처: 경근만(2017). 보지사용법. 서울:인물과 사상사. P.45.

합리화하는 일상 속 비합리적 현상에 합리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존재하지만 볼 수 없었던 사람" I "알고 있지만 찾을 수 없던 사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우리의 일상적 삶에는 지각력의 본원적 한계로 인해 보이지는 문제가 무수히 많다. 이러한 문제 의식 결여로 인해 방치된 수많은 문제들. 이 문제를 다루는 것 또한 커뮤니케이션학이 다루어야 할 과제의 영역. 그 해결책 중 하나가 넋지 커뮤니케이션.

※출처: 강준만(2017). 넋지 사용법. 서울:인물과사상사. p.34. 참조 및 인용



©LOUD.

1967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Martin Luther King Jr.)는 현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미래에 닥칠 문제를 예언했다.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은 갖고 있는 가치관의 완전한 변혁과 그에 기반한 실천이었다. 그래야만

[물질만능사회] (a thing-oriented society)로부터

[사람중심사회] (a person-oriented society)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 Klein, N. (2017). No Is Not Enough: Resisting the New Shock Politics and Winning the World We Need. Tronto:Random house.

창의적 네티 커뮤니케이터들이 주인공이 되는 사회 = 사람중심사회다.

기술, 수치화된 실적, 자본 등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사람 보다 중요시 되는 순간 맞게 될 수많은 문제를 경고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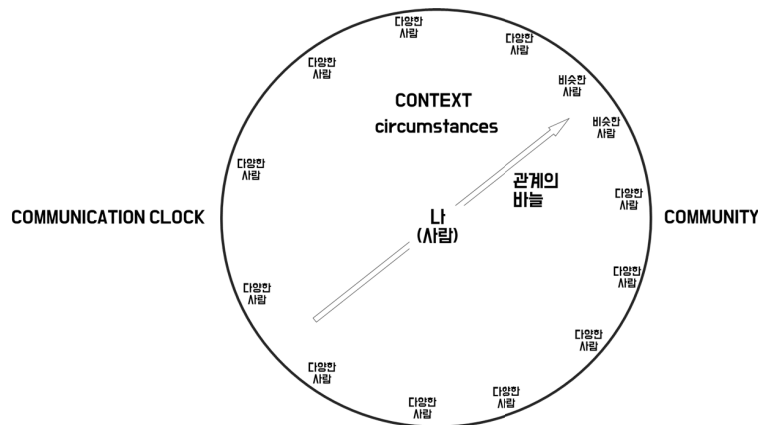
실제 이러한 경고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 현실이 되었고 현재 그 끝이 보임에도 우리는 앞만 보고 질주 중이다.

이러한 질주를 멈추도록 할 수 있는 [근본적 혁명](radical revolution)이란, 한 사회가 갖게 되는 [가치(values)]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다.

특정 시점에서 중시하는 물질가치, 가치관 즉 일상이 된 상식과 삶의 가치를 바라보는 태도를 정치가 아닌 개인의 일상 속에서 바꿔야 한다.

스스로 [정치 대중]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이판을 위한 감성적 저항]이 아닌 [감시를 위한 이성적 침묵의 힘]을 깨달아야 한다.

※출처: 이종혁(2017). 커뮤니케이터. 서울:소통공방.



'나'를 중심으로 한 관계와 소통의 복원

다양한 사람들이 표출하는 다양한 생각,

다양한 생각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의적 문제제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창의적 네티 커뮤니케이터.

이들의 실천이 바로 공공 커뮤니케이션.

네티 커뮤니케이터들의 공공 커뮤니케이션이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발현되는 사회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가능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시계를 공동체의 힘으로 돌려야 할 때임. 그 중심에는 바로 [자신]이 있음을 [자각]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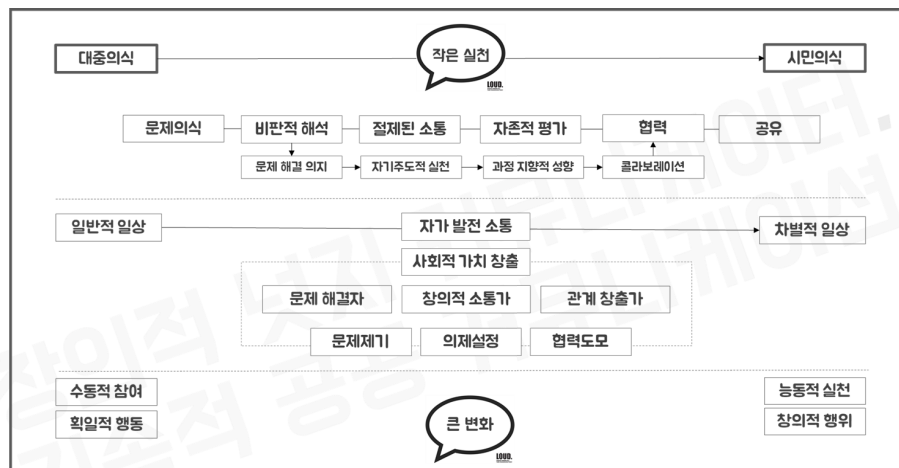
LOUD.
Professor Joseph Han's
Public Communication Project

30-40년 전부터 환경문제에 관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우리는 늘 육체적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병행해 이제는 일종의 정신건강 운동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범람하는 상업 광고는 우리 정신을 심각하게 오염시켜 왔다. 이는 환경오염이 초래했던 건강 위협에 버금가는 것이다. 미디어에서 쏟아내는 상업적 광고, 불필요한 이슈 제기로 인해 정신 건강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결국 인간이 행복해 지기 위해서는 정신적, 육체적 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출처: 이종혁(2017), Kalle Lasn X 이종혁_칼레라스 인터뷰 내용 중 인용, <http://loudproject.com/220985454299>



일상에 대한 저항 | 정신환경(mental environment)



이종혁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공공소통연구소 소장
1000. [리더]

www.loudproject.org
www.loudproject.com

© 본 자료는 제3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문화예술분야 발표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제3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제3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패널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지속가능성에 대한 과학 · 인문학 · 문화예술 분야별 논의를 바탕으로

패널 | 각 분야 연사 및 재단 장학생 총 6인

구분	패널 분야	이름	구분	전공
이공계 대학원 장학생	이공계 분야	박새한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기초학문 학부 장학생	인문학 분야	장민석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문화예술 학부 장학생	문화예술 분야	김병준	연세대학교	피아노과

지속가능한 발전

작물 다양성의 활용

기초학문 학부 장학생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
박 새 한



작물 다양성의 활용 ● ● ●

작물 다양성의 부족



- 상업적 작물은 150종
- 밀과 옥수수-전세계 단백질, 열량 필요량의 절반 공급
- 7000종 그 외 작물들의 가치 재조명

NERICA New Rice of Africa

비 상업 작물의 재생 (revival)

식물 조직 배양 기술

아프리카 벼와 아시아 벼의 육종

빈곤, 농가수입, 불균형 해소

벼의 새로운 유전자 풀 확보



지속가능한 발전 CROP DIVERSITY

식량자원분배

기후변화대응

농업가치창출



지구촌 윤리 (Global Justice)

- 해외원조의 도덕적 당위성에 대하여

나이젤 다우어(Nigel Dower)의 입장 소개

기초학문분야 장학생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장민석

1

인문학분야 패널토의

Facts

1 UN 인권선언(1948)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
인간은 타고난 이성과 양심을 지니고 있으며, 형제애의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 간에 행동해야 한다.

2 절대빈곤

- 적합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 이하의 수입상태
- 높은 영아 사망률, 표준 이하의 영양상태
- 40%이상의 성인 문맹률, 삼분의 일 이하의 평균 수명
- 개발도상국 인구의 약 40%, 약 12억

UN 목표 원조액

선진국 GDP 0.7%

실제 원조액

미국 0.14%, 한국 0.093%, 영국 0.38%

2

인문학분야 패널토의

쟁점들

1 개인의 재정의

국민(Nation)

30년전쟁(1618-1648) -> 베스트팔렌조약(1648)

세계시민(Global Citizen)

제2차세계대전(1939-1945) -> UN 인권 선언(1948)

2 자선 VS 의무

자선

- Supererogation
- 의무 이상의 선행
- 하면 칭찬 받는 것

의무

- Obligation/Justice
- 도덕적 비난의 대상

3

인문학분야 패널토의

다우어의 생각

1 의의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 보살핌(Caring)으로서의 원조
- 개발(Development) : 경제적 발전 X, 기본적 삶의 욕구 보장

2 결론

“상당한, 그러나 엄격하게 과증하지는 않은 의무가 있다”

- 근거1: 가난한 나라의 빈곤은 절대적 빈곤이기에 더 고통스럽다.
- 근거2: 빈곤을 구휼하는 의무는 자국 공동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 근거3: 죽음(Killing)과 죽게 내버려 둠(Allowing to Die)는 도덕적으로 동일하다.
- 근거4: 그러나 우리의 원조하지 않았을 때 누릴 삶의 질을 포기하면서까지 원조하는 것은 우리의 직관에서 벗어난다.

4

지속가능한 미래

-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학부 장학생

연세대학교 피아노과 김병준



빈민층을 위한 오케스트라 교육 베네수엘라 '엘 시스템아'



한국에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하트하트장학재단

문화예술교육

자아존중감
창의성 향상
불안, 우울 감소
정체성 확립

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 앙상블



현대차 정몽구 재단 장학생들로 이루어진 앙상블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나눔 연주를 시행

결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문화예술

- 1 문화예술 경험에 있어 기회와 참여의 평등
- 2 문화적 경험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문화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
자신의 정체성 확립

제3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제3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제3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제3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제3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현대차
정몽구 재단

Chung Mong-Koo Foundation

